

<SW중심사회>

100호 출간이 갖는
완성의 의미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2014년부터 10여 년 가까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의 등대가 되어 온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SW중심사회>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국가정책 싱크탱크인 국책 연구소로서 소프트웨어정책 연구소가 우리 협회 및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 산업계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기인한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우리 산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인지하여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온 <SW중심사회>는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패권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숫자 100은 인류에게 전체이자 완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온 국민을 이르는 말인 백성이 숫자 백(百)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SW중심사회>의 100호 출간이 향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우리 산업계와 함께 디지털 경제 강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SW중심사회>의 100호 출간을 축하드립니다.